

# “부정적 · 소극적 대화 삼가하자”

생활불교용어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여럿이 모여서 다루고, 시비하는 그런 모습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흔히 “야단법석을 떠다” “야단법석이 났다” “야단법석을 떠다” “야단법석을 친다” 등의 말을 자주한다.

그러나 불교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사람들을 위해 야(野)에 법단(法壇)을 차려놓고 하는 설법장(設法場)을 말한다. 법당(法堂)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숫자의 대중이면 자연 야단법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가 최초로 법석을 편 것은 녹야원(鹿野苑)에서이다. 간지스강과 바라나스강이 갈라지는 삼각지에 그림처럼 펼쳐있는 녹야원, 이곳에서 부처님은 법석을 펼쳤다. 불단(佛壇)은 나무등걸이 아니면 작은 바위였을 것이다.

### 야단법석

### 법당밖에 법단을 차린 설법장 시끄럽고 다투는 모습으로 변질

그야말로 야의 자연 그대로의 법석이다. 이 야단법석(野壇法席)에 참여한 사람은 5명이였다. 교진여(橋陳如) 가섭(迦葉) 아슈비지트(阿濕波) 바드리카(跋提迦) 풀리카(俱利)의 다섯 비구다. 이 야단법석에서 부처님은 사성제(四聖諦), 오온법(五蘊法), 중도관(中道觀)을 설하였다.

야단법석 가운데서 가장 대규모의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인 것으로 기록된다. 장소는 마갈라국 왕사성 기사굴산(耆闍崛山), 즉 영취산 산정(山頂)에서다.

근세에 들어 국내에서 편 야단법석은 불교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의도광장과 동대문운동장에서 펼친 봉축대법요식이나 한강·낙동강·금강 등을 불보살님의 자비연등으로 수놓은 연등축제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전 종단 등이 연합해 벌인 수륙대제나 독립기념관에서의 영산대제 등 다양하다.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야단법석이라는 감동적인 불교용어는 세속의 야단법석에 가려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불교의 야단법석을 펴자. 규모나 내용에서 법석이 흐르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을 기대한다.

참고: 안길복 '이화사편 야단법석'

##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5>

자기충족예언과 일체유심조 ②

“인간이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이 테두리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을 자기충족예언이라고 한다. 교육학자 김중서박사는 자기충족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급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대접해 준다면 거기에는 우수한 학생에의 기대가 따라 간다는 말이 된다. 만약에 학생을 둔한 학생으로 대한다고 하면 학생에의 기대는 둔한 학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니, 사람은 인정과 기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대접과 인정, 거기에 따르는 기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생에게 전달이 되면 학생들은 그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실험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어 봐서 교원들의 말이나 태도가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이 달라진다. 교사가 학생을 탐구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으면 학생들은 탐구적이고 활동적으로 되는 반면에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하고 수동적으로 보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곧 교사에 의한 학생 평가와 관련이 깊다. 평가는 일종의 판단이며 이 판단이 곧 자기충족예언을 형성한다. 교사에 의하여 특정 학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학생을 그런 인간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정교육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와 판단은 자녀의 장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녀를 계몽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 사회성이 부족한 자라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면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또한 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자기충족예언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대와 관련 있는 대화를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림 · 이준석

### ‘자기충족예언’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 커 “부처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도록...”

죽어간다. 자기충족예언은 어린이의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어린이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낙관적 긍정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점은 조선조의 태조와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태조가 말하되 “내가 본 대사의 모습은 굶주린 개가 뒷간을 바라보는 모습이며 산 돼지가(눈을 흘기며) 산모퉁이를 도는 모습 같소.” 대사가 이에 답하여 아뢰되 “제가 본 임금님의 모습은 완전히 부처님 같습니다.” 태조가 말하되 “왜 다루러하지 않고 못난체를 하시오.” 대사가 아뢰되 “부처님 눈으로 보면 사람 모두 부처님 같고 용의 눈으로 보면 사람 모두 용같이 보입니다.” (太祖曰 吾觀大師之像 飢狗望廁之像 山猪負糞之形 大師答曰 我觀上王之像 宛是佛像 太祖曰 何不戮劣, 太祖曰 以佛眼觀之 則人皆如佛 以龍眼觀之 則人皆如龍)

어릴 때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충족예언에 따라 어릴 때 형성된 인생관, 세계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특히 불자들은 자녀들이 불교적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교적 관점이란 무학대사의 말대로 부

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아야 함을 말한다. 부처님의 눈으로 인생과 세계를 보는 것은 성인군자들이나 가능하지 어떻게 어린이에게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 삼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알맞은 불법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나는 벌레나 짐승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욕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탐내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대하는 자기충족예언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금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벌레나 짐승을 죽이면 안돼”라고 하는 지시, 명령,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레나 짐승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주위에서 일관성있게 기대하고 말하면 이 기대가 자녀에게 묵시적으로 전달되어 ‘불살생’의 자기충족예언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형성된 인생관, 세계관이 곧 부처님의 눈으로 본 인생관, 세계관이다. 나는 늘 부처님의 눈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누구도 손쉽게 지닐 수 있는 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 “죽이지 않고 흠치지 않고 욕 · 거짓말 안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 어린이에게 오게 되도록 자기충족예언 심자

담임교사가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인정과 그에 따른 기대는 일종의 그 학생에 대한 예언적인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봐서 그러한 인정과 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 예언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담임교사가 “너는 머리가 별 수 없다”라는 인정과 그에 따른 기대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간에 학생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학생은 일반적으로 그 예언에 맞추려고 하고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 학생으로서 행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매력!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항생제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궁,계피등)를 첨가하여 한국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기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킴.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현  
세련미는 미용관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항생제추출물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 오보크린은 알부민프로테인과 펩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로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